

일. 아브라함: 언약의 선지자

- ❖ 아브라함은 최초의 “선지자”입니다(창 20:7). 하나님은 직접 그를 부르셔서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팽배한 고향 도시를 떠나 알지도 못하는 장소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창 12:1).
- ❖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몇 가지 약속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존귀하게 높이실 것이며,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축복이 내릴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창 12:2-3).
- ❖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히 11:8).
- ❖ 선지자로서 아브라함은 임박한 재앙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세상에 알리고 메시아를 보내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선포하라고 부르셨습니다.
- ❖ 가나안에 머무는 동안 아브라함(본명 아브람)은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서 다양한 기별들을 받았습니다:
 - 세겜에서 그는 자기 후손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창 12:6-7)
 - 벨엘에서는 그의 후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언약을 다시 확신시키셨습니다.(창. 13:14-18)
 - 마르레에서도 자기 후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고 “아브람은 주님을 믿었고, 주님께서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습니다.(창. 15:1-6)
 - 이 때, 하나님께서 제물들 사이로 지나가시며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창 15:7-21)
 -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사라가 낳은 아들이 그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확인하셨습니다(창 17:1-8, 15-16)
 - 하나님께서는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삭이 태어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창 18:1-2, 10)
 -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죽을 양을 준비하심으로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창 22:1-3, 9-13).

이. 엘리야: 회복의 선지자

- ❖ Ahab and Jezebel had led the nation of Israel into a serious apostasy. Only a few served God; the rest worshipped 아합왕과 이세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각한 배도로 이끌었습니다. 얼마 안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외에는 모두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다른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선지자 엘리야를 부르셨습니다(열왕기상 17:1).
- ❖ 고통스러운 가뭄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된 끝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아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호소했으나, 그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왕상 18:21). 그들이 참되신 하나님을 깨닫게 하려면 기적이 필요했습니다(왕상 18:30-39).
- ❖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선지자 엘리야의 기별이 강력하게 선포될 것입니다. 이 기별의 주 목적은 가정 제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말 4:5-6).
- ❖ 회복된 가정 제단을 통해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에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시작할까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회가 기다리는 엘리야입니다.

삼. 이사야: 메시아의 선지자

- ❖ 이사야는 백성들에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라는 기별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사 1:18).
- ❖ 웃시아 왕이 죽었을 때, 이사야는 자신의 사역 기간 내내 그를 붙들여 줄 인상적인 환상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문지방이 흔들렸고, 그도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떨어졌습니다(사 6:1-5).
- ❖ 하나님께 용서를 받자 이사야는 두려움 없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사 6:6-8)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기별을 선포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 ❖ 이사야는 긴 사역의 기간을 통해 회개를 촉구할 뿐 아니라, 특히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선포했습니다.
- ❖ 따라서 이사야서는 ‘원(原)복음서’ 또는 제 5 복음서로도 불립니다.
- ❖ 이사야 53 장은 예수님께서 이루실 구원계획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 예수님의 모습(매력)은 세상이 따르는 것들이 아니라 영적인 것임(2 절)
 - 멸시 당하고, 상처 입고, 거절당하심(3 절)
 -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으나, 그들이 영접하지 않음 (4 절)
 -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심(5 절)

-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심 (6 절)
- 법정에서 고발당하실 때도 자신을 변호하지 않으심(7 절)
- 재판을 받으시고 사형 선고 받으심(8 절)
- 부자들과 같이 무덤에 묻히심 (9 절)
- 결코 죄 짓지 않으심 (9 절)
- 사람들 대신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 (10 절)
- 때가 오면 자신이 구원하신 사람들과 함께 거하실 것임 (11 절)
- 이제 우리를 위해 중재하고 계심 (12 절)

사. 다니엘: 미래의 선지자

- ❖ 다니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충실했습니다. 그는 음식을 선택할 때 원칙을 잘 지켰고(단 1:8),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신실했으며(단 2:27-30), 느부갓네살왕에게 닥칠 재앙을 예언할 때도 신실했습니다(단 4:19). 또 벨사살 왕의 죄를 지적하고(단 5:22-23) 개인 기도 습관(단 6:10)도 충실히 지켰습니다.
- ❖ 다니엘은 개인적으로 충실한 삶을 살았을 뿐 아니라, 바빌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그리고 유럽의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는 사명도 받았습니다 (단 2 장, 7~12 장).
- ❖ 세계 제국들의 운명에 대한 예언 가운데서 심판(단 7:9-10)과 예수님께서 처음 세상에 오실 시기(단 9:24-27)도 선포했습니다).
- ❖ 다니엘의 예언을 연구하면 현재 성취되지 않은 예언, 즉 곧 오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단 2:44; 7:27).

오. 침례 요한: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는 선지자

- ❖ 사무엘과 예레미야와 같이 요한도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고 구별되었습니다. 그는 메시아의 선구자로서 엘리야의 사명을 전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눅 1:13-17).
- ❖ 침례 요한의 겸손한 삶과 죄를 지적하며 회개하라는 확신에 찬 선포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기 위해 그에게 몰려왔습니다(막 1:4-6). 그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 전환점을 맞이했는데, 마귀는 무력하게 대응하다가 마침내 침례 요한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눅 9:9).
- ❖ 엘리야의 사역이자 요한의 사역은 이제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진리와 죄를 회개하라는 복음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라고 외치라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 ❖ 이 사명을 따르는 삶은 결코 순탄하지 않습니다. 충성과 확신, 그리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현세의 안정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영원한 생명은 보장됩니다(우리 자신은 물론, 오늘 이 기별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록: 선지자의 사명으로 엘렌 화잇을 부르심

엘렌 굴드 하몬은 17 세 때인 1844 년 12 월에 첫 번째 환상을 보았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 8 장 14 절의 예언을 1843 년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후 (그의 추종자들이) 1844 년 10 월 22 일로 날짜를 정했으나,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와중에 엘렌은 환상에서 이 세상에서 하늘 예루살렘 성으로 이어지는 길을 보았고, 재림교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도를 받으며 그 거룩한 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면 그 길을 따라 전진할 수 있었지만, 눈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길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엘렌의 계시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으나, 결국 그녀는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전한 메시지는 초기부터 재림교인들을 격려하고 인도해 왔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